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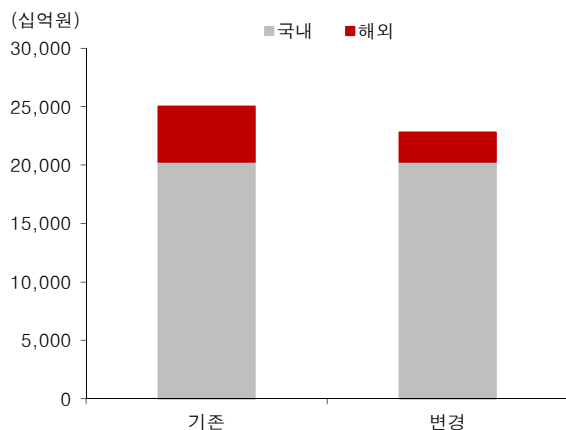
Issue Comment

- ✓ 대림산업, 이란 이스파한 정유 2.2 조원 공사계약 해지
- ✓ 해지 가능성은 주가에 선반영, 주가 하락 영향은 제한적
- ✓ 하반기 수주 모멘텀 소외로 주가 상승 여력 또한 제한적

[건설] 대림산업, 이란 정유 공사계약 해지

-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 계약을 체결한 2.2 조원의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사를 계약 해지함. 이는 지난해 매출액 9.5 조원 기준 23.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 주요 해지 사유는 트럼프발 이란 경제제재 강화 기조로 인해 금융 조달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 해당 프로젝트는 1) 계약 발효 요건인 금융조달이 완료되지 않거나, 2) 발주처와 대림산업간의 추가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되는 조항이 있었음. 발주처와 대림산업은 3개월씩 두차례 계약 기한을 연장해왔으나, 미국 이란 핵 협상 탈퇴로 인해 금융 조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추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임
- 계약 해지가 대림산업의 귀책이 아니고 (대림산업은 금융조달 주선자 (Arranger)로서, 조달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다만, 대림산업 해외 수주잔고가 4.7 조원에서 2.5 조원으로 감소하게 됨
- 이미 이란 이스파한 정유의 착공 가시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판단으로, 현 주가가 Forward PBR 0.56X임을 감안할 때 주가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 그러나 대림산업이 이란 익스포저가 높고, 해외 수주 가이던스가 금년도 1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해외 수주 모멘텀에서 소외된다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 역시 제한적으로 판단됨

대림산업 수주잔고 변화



대림산업 12M Forward PBR 추이



자료: 대림산업, SK 증권

자료: FnGuide,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